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11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29일(화) 오전 11시 부터 보도)

배포일시	2016. 11. 29. (화)	담당부서	산업부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기준 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김태우 서기관(044-203-5651) 유의택 사무관(044-203-5654)

산업부 장관,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인프라, 산업,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 모색

- 미국 기업에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장관(주형환)**은 11. 29. (화)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**주한미국상공회의소(AMCHAM) 오찬 간담회**에 참석, **「트럼프 신정부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」**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.

○ 간담회에는 **제임스 킴(James Kim) 암참 회장, 존 슐트(John Schuldt) 암참 대표, 마크 리퍼트(Mark Lippert) 주한 미국대사**등 약 1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.

□ 주형환 장관은 연설에서 "그간 한미 경제·통상 관계는 **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을** 통해 **상호 호혜적인 성과**를 창출해 왔으며,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**지속 심화·발전** 시켜야한다."라고 강조했다.

○ "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는 협상시점부터 양국 간 **이익균형**을 이루었고, 세계교역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년간 **교역·투자, 일자리 창출**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다."라고 평가했다.

* 세계교역 규모: 18.3조 달러(11년) → 16.5조 달러(15년), 10% 감소
  한미 교역규모: 1,000억 달러(11년) → 1,150억 달러(15년) 15% 증가
* 상품(한국이 258억 달러 흑자), 서비스(한국이 144억 달러 적자)
* 대미 투자, 연평균(21.8억 달러(08-11)→57.2억 달러(12-15), 미 상무부)
* 현지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(35,000(11년)→45,000(14년), 1만 명 이상)

○ 또한, "한·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**경제협력의 틀**로써 **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**에 이바지 했다."라고 말하면서, "앞으로 **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의 성실한 이행**에 중점을 두면서 양국 간 규제협력 대화 등을 통해서 **미국 측과 협의**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□ 또한, 주형환 장관은 **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**을 감안할 때, 양국 기업 간 **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**될 것으로 예상한다."면서, 다음의 **세 가지 협력분야**를 제시했다.

① 먼저, **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**으로 노후화한 **도로·교량·전력 시설** 등의 **현대화 작업**에 **한-미 기업이 함께 시공사나 전략적·재무적 투자자로 참여**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,

② 미국 **전통제조업 육성 전략**에 따라 **자동차, 가전**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 간 공동 연구개발(R&D), 인력교류, 인수합병 및 직접투자 등 **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창출할** 것이라 전망함

③ 석유, 셰일가스 등의 **전통에너지 개발 정책**은 **우리나라**의 **에너지안보 및 에너지가격 안정화**와, **미국**의 **일자리 창출 및 무역적자 해소**에 이바지해 양측이 성과를 거둘 것임

□ 아울러, **4차 산업혁명**에 따라 진행될 **한미 간 새로운 분업구조**로 양국 간 **투자기회가 확대**할 것이며,

○ 이와 관련해 국내적으로는 **외투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**을 위해 **국제기준(Global Standard)**에 맞는 **규제개선, 고용 유연화** 등을 추진, **친(親)비즈니스 환경 조성**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.

□ 이어 **암참 회장과의 대담**에서는 "미국 **새정부 출범**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·통상관계가 더욱 심화·발전되도록, **암참이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메신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.**"라고 당부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유의택 사무관(☎044-203-56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